



힘든 이들은 청암사로 ... 인현왕후처럼

④ 김천 청암사(靑巖寺)

'이렇듯 3, 4년이 지나니 천운이 순환하여 흥진비래(興盡悲來)에 고진감래(苦盡甘來)라, 부운이(浮雲)점점 곁힘에 태양이 다시 밝아오니, 성종(聖聰)의 깨달음이 계시어 민후의 억울하심을 알고, 장빈의 요음간악함을 깨치시어 의심이 가득하시니 대하시는 기색이 전과 다르시고 서인(西人)들이 후의 삼촌 숙질을 다 처벌하시라고 날마다 아뢰기를 수년에 이르렀으니 상감께서 마침내 불윤(不允)하시니 이리므로 민씨 일문이 보존되었던 것이었다.' (인현왕후전) 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난 숙종은 후회했다. 길은 하나였고 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먼 길'이란 있을 수 없었고, 다른 길도 역시

있을 수 없었다. 그 먼 길 끝에 가엸은 여인 인현왕후가 있었다. 후회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숙종은 그 먼 길을 가야했다. 점점 산중이었다. 그리고 절이 하나 있었다. 청암사였다. 장희빈으로 인해 궁에서 쫓겨난 숙종의 비(妃) 인현왕후는 청암사 극락전에 있었다. 까치가 울며 날아간다.

마른 잎들이 골짜기를 때우고, 할거워진 숲엔 겨울바람이 들어 있다. 강원(講院) 댓돌 위에는 털신과 흰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문지방 너머엔 맑은 눈빛들이 들어있다. 청암사다.

청암사는 859년(신라 헌안왕 3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 창건 당시 구산선문 개조인 혜철(慧哲; 785~861) 스님이 머물렀다. 조선 중기까지의 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1897년 폐사됐다가 1900년대 초 극락전을 복원하면서 불사가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녀는 궁으로 돌아간다. 흥진비래에 고진감래라. 힘든 시간을 견뎌낸 그녀는 왕후의 자리로 돌아간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청암사에 가볼 일이다. 한 여인이 견뎌낸 시간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믿어주는 일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다. 백성을 품은 임금과 왕비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 그렇다.

극락전 앞에 까치둥지가 보인다. 사라지고 짓기를 천년. 까치집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다시 까치가 운다. 사라졌던 절, 청암사. 천년 도량도 천년 세월도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 모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다. 골짜기의 마른잎들, 숲의 겨울바람, 댓돌에 신 벗어 놓은 맑은 눈빛들. 학인스님이 경전을 품에 안고 강원 뒤편마루를 오른다.

글·사진=박재완 기자(wanhollo@hanmail.net)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범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상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청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상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철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철2도 인쇄

현대불교
현 불 샵 02)2004-8215